

행정안전부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창업지원사업/창업초기지원
- 소관부처/담당부서 : 행정안전부/지역일자리경제과
- '21년 평가등급 : 성과등급 미산출 사업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청년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4년간('18~'21) 7만 명 이상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창업지원(임대료, 교육·컨설팅/ 1인당 연 1,500만원 수준) 또는 고용친화적 생태계조성

□ 예산 및 재원 : 일반회계

〈표 1〉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 (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집행률)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35,544	-	35,543 (99.9)	21,785	△13,759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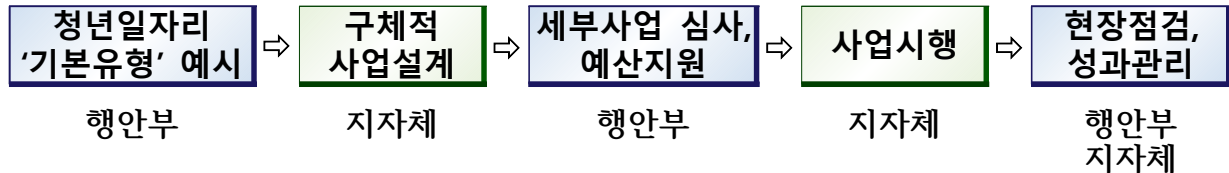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2항

□ 주요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전달체계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세부내역사업을 신설함에 따른 지원규모 축소 (-13,759백만원, 38.7% ↓)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 (성별) ‘20년 전체 참여자는 2,364명이며, 이 중 남성 참여자의 비중은 54.7%, 여성 참여자의 비중은 45.2%로 남성 참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 ‘20년 기준 청년층(15~34세)의 참여 비중은 75.0%이며, 중년층(35~54세)은 22.0%로, 청년층이 참여자의 다수를 차지함

〈표 2〉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유형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35~39세			
창업지원사업 전체	32,658 (100.0)	25,220 (77.2)	7,431 (22.8)	9,051 (27.7)	19,759 (60.5)	5,732 (17.6)	3,320 (10.2)	447 (1.4)
창업초기지원 전체	4,403 (100.0)	2,463 (55.9)	1,939 (44.0)	2,480 (56.3)	1,574 (35.7)	829 (18.8)	217 (4.9)	61 (1.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2,364 (100.0)	1,294 (54.7)	1,069 (45.2)	1,773 (75.0)	519 (22.0)	476 (20.1)	2 (0.1)	1 (0.0)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체 현황

- (규모별) '20년 사업체 2,364개소 중 고용보험 DB에 연계된 사업체는 956개소이며, 30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39.9%, 30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이 0.5%로 나타남
- (산업별) '20년 기준 서비스업 635개소(26.9%)였으며, 제조업 298개소(12.6%), 건설업 20개소(0.8%) 순으로 나타남

〈표 3〉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사업 사업체 현황

(단위: 명, %)

유형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창업지원사업 전체	32,658 (100.0)	24,359 (74.6)	13 (0.0)	9,137 (28.0)	205 (0.6)	14,880 (45.6)
창업초기지원 전체	4,403 (100.0)	1,518 (34.5)	13 (0.3)	538 (12.2)	22 (0.5)	959 (21.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2,364 (100.0)	943 (39.9)	13 (0.5)	298 (12.6)	20 (0.8)	635 (26.9)

주1: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주2: 부처 제공자료와 고용보험DB가 연계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정량지표별 결과

〈표 4〉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사업 성과지표

(단위: %, 일)

	지속고용 사업장비율	고용창출 기업비율	고용증감률	임금수준	창업률
창업지원사업 전체	71.0	62.9	53.3	131.5	84.9
창업초기지원 전체	65.3	48.2	-	-	84.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78.2	36.8	-	-	75.5

주: 부처 제공자료와 고용보험 DB와의 매칭률은 '19년 29.8%, '20년 36.8%임

□ 만족도 조사 결과

〈표 5〉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창업지원 전체	4.33	4.34	4.19	4.42	4.20	3.97	4.17	4.20	4.45	4.34
창업초기지원 전체	4.29	4.31	4.14	4.34	4.16	3.91	4.14	4.14	4.41	4.2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4.31	4.30	4.17	4.51	4.15	3.94	4.18	4.09	4.46	4.32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표 6〉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전년도 대비 변화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평가년도 만족도	4.31	4.30	4.17	4.51	4.15	3.94	4.18	4.09	4.46	4.32
전년도 만족도	4.13	4.12	4.13	4.43	4.07	4.00	4.20	3.93	4.22	4.05
전년 대비 변화	+0.18	+0.18	+0.04	+0.08	+0.08	△0.06	△0.02	+0.16	+0.24	+0.27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사업의 중요성

- 지자체가 지역에 필요한 청년 일자리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국정과제(75-7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소비 진작)에 부합함

- '20년 사업 참여인원이 3.6만 명에 달하며, 지역별 참여비율은 비수도권 87.4%, 수도권 12.6%로 청년의 비수도권 정착 유도를 위해 노력

- 청년층 고용위기 극복 지원 및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사업의 정당성이 인정됨

□ 일자리사업 성과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의 일 경험 제공을 통한 고용 창출·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직접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임
- 내역사업인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사업은 청년의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정착 등을 유도하는 간접일자리사업으로 참여 청년의 지역 내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20년에 전년보다 7.6% 포인트 증가한 76.3%의 창업률을 기록함

< 연도별 사업 참여 인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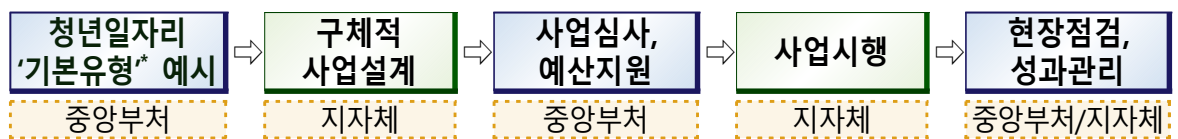
구 분	참여인원 (명)		일자리 창출 효과 (창업률*, %)
	세부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내역사업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계	83,389	12,466	
'18년(7~12월)	11,057	1,257	85.9
'19년	36,265	5,881	68.7
'20년	36,067	5,328	76.3

* 창업률=창업투자생태계지원형 사업의 '신규사업자 등록 인원/예비창업자 수'

- 참고로 2019년 신규사업 등록자(1,708명)의 창업 유지율은 98.6%(1,684명)이며, 2020년 창업지원 인원 중 초기 창업자(1,845명)가 사업 참여 이후 추가 고용한 인원은 987명임

□ 운영의 적절성

- 이 사업은 '지자체 주도-중앙부처 지원'의 상향식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취지에 부합함
- 중앙부처가 인건비, 교육, 주거·복지(지방비) 등 유형별 최소기준만 제시하고, 사업의 기획·운영에 있어 지자체가 지역별 고용여건 및 산업 특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임



- 참여 청년에게 교육·컨설팅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애로사항 해소, 취·창업 간접 지원, 재료비·임차비 등 사업수행 경상경비 지원 등 연간 1인당 1,50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최대 2년 이내 제공함
- 다만 사업실적 관리가 국비에 대한 집행률과 사업 참여 인원 점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자체 자체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적 중복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참고로 이 사업은 수행기관 지방비와 5:5 매칭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자체 자체 사업과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제도 개선 노력

- '20년에는 '19년과 비교하여 추가모집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지원을 강화함
- 참여인원 선발 시 지자체 공고-접수-면접을 통한 공개경쟁 모집이 원칙이나, 추가모집에 대해서는 광역단위 통합 선발·교육을 장려하고, 추가모집 인원이 10인 이내인 경우 모집 참여 예비대상자에게 예외적으로 절차 간소화를 허용함

- * '21년 사업 시행지침 개정: 청년 선발 시 목표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선발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중도포기자 발생 시 명부에 있는 청년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즉시 채용
- 참여 청년의 창업 교육·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기본·심화 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과 연계된 기타지원비(1인당 연간 최대 150만 원)를 간접지원비 총액의 10% 이내에서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